

#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Black Leather Jacket 연구

김 지 선\* · 염 혜 정\*\*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A Study on Black Leather Jacket in Youth Sub-Culture

Ji-Seon Kim\* · Hae-Jung Yum\*\*

Mast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Chonbuk Nat'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Chonbuk Nat'l Univ\*\*

(2004. 9. 15 투고)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emergence of black leather jacket that began appearing in full-scale among youth sub-culture from 1950's, and to research its styles and aesthetic features on the basis of that. The researcher has intended to a theoretical frame to recreate black leather jacket which has been developing in youth sub-culture style as a resource of new design in modern fashion trend through this study.

There are 5 styles of black leather jacket in youth sub-culture after 1950's. Firstly, biker style black leather jacket showed ruined war heroes substituting for military uniform. Secondly, rocker style black leather jacket brought the conversion in definition of masculinity. Thirdly, greaser style black leather jacket showed the beauty of uncleanness expressing resistance and violence with tattered dirty materials and excessive metal ornaments. Fourthly, headbanger style black leather jacket was prominent in various and compound decoration due to combination of rocker and hippie features. Fifthly, punk style black leather jacket was influenced greatly by Sex Pistols.

There are broadly three ecstatic features of black leather jacket among youth sub-culture. With regard to displaying terrorism, black leather jacket displayed threatening aspects with black color, formative beauty of inverted triangle, additional decoration, and animal & brutal feelings. Paradoxical trophyism showed Nihilism, disorder, and resistance through black color that symbolize bad luck and unstability, trophyism with bad flavor, tattered material effect, and destructive message painting. Masculine eroticism appeared in accordance with pursuing after pleasure and masculine sexuality through exposure of buttocks and focused penis due to jacket's short length, and fetish of black.

Key words: black leather jacket(블랙 레더 재킷), youth sub-culture(청년하위문화), displaying terrorism(과시적 테러리즘), paradoxical trophyism(역설적 트로피즘), masculine eroticism(남성적 에로티시즘)

## I. 서론

현대 패션에 있어 블랙 레더 재킷(Black Leather Jacket)은 매우 보편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누구나 한 벌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션 코디네이트의 기본 아이템으로서 매 시즌 컬렉션에 등장하여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블랙 레더 재킷이 현대인들의 감성에 부합하는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블랙 레더 재킷은 플라이트 재킷(flight jacket)<sup>1)</sup>에서 청년하위문화로 전파된 퍼펙토(perfecto)를 기본으로 한 스타일을 말한다. 이것이 점차 일반인에게 전파됨에 따라 1950년대 말에는 도시 외곽의 비행 청소년들을, 그들이 즐겨 입었던 블랙 레더 재킷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블루종 노아르(blousons noirs)<sup>2)</sup>란 말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의 비행 청소년들의 스타일에서 명맥을 이어온 블랙 레더 재킷의 이미지가 새로운 패션 아이디어로 재창조되고 패션 트렌드로 부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을 다룬 몇몇의 연구에서 극히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양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하위문화 복식 스타일을 이야기하면서 몇몇의 하위문화에 레더 재킷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며<sup>3)</sup>, 엄소희(1988)의 연구에서는 핑크 스타일의 한 부분으로서 블랙 레더 재킷을 논의하고 있다<sup>4)</sup>. 또한 장미선, 조규화(1996)<sup>5)</sup>의 연구와 정미진, 정홍숙, 김선화(2002)<sup>6)</sup>의 연구는 각각 음악에 의해 파생된 복식 스타일의 한 가지로 블랙 레더 재킷을 잠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 레더 재킷에 관한 심도 있는 개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로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을 분석하여 그 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블랙 레더 재킷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출현 배경과 변천, 스타일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블랙 레더 재킷의 미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블랙 레더 재킷과 관련된 현재 패션 산업에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전개를 유도하고, 나아가 패션 디자인의 발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의의로 하

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청년하위문화 스타일들은 하위문화 스타일의 종류와 특성을 시대별, 지역별로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하위문화와 관련된 연구에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폴헤머스(T. Polhemus)<sup>7)</sup>, 헤이(A. D. La Haye)와 딩월(C. Dingwall)<sup>8)</sup>, 타카무라(Z. Takamura)<sup>9)</sup>에 근거하였다. 문헌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블랙 레더 재킷의 출현 시기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보았으며, 특히 청년하위문화와 관련해서는 바이커 스타일이 나타난 1950년대부터 핑크 스타일이 나타난 1980년대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블랙 레더 재킷의 개념 정립과 출현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자료를 사용하였고,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의 형태와 장식적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과 영화 등의 시각자료를 이용하였다.

## II. Black Leather Jacket의 개념 및 출현

### 1. Black Leather Jacket의 개념

블랙 레더 재킷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블랙의 레더 소재로 만든 재킷'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재킷은 '허리길이 정도까지의 길이로 일반적으로는 소매 달린 상의의 총칭<sup>10)</sup>'으로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블랙 레더 재킷이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블랙 레더 재킷의 원형이 되며, 청년하위문화를 거치며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게 된 협의의 블랙 레더 재킷을 말한



<그림 1> 퍼펙토 스타일

다. 그리고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블랙 레더 재킷은 퍼펙토(perfecto)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그림 1)<sup>11)</sup>.

블랙 레더 재킷의 개념은 색상, 소재가 갖는 조형적 특징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출현하여 변천해 온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개념도 변화되어왔다.

20세기 후반의 청년하위문화는 주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 불안 심리에서 반항과 허무감이 과생되었고, 이러한 불안감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색채로 선택된 것이 블랙이었다<sup>12)</sup>. 여러 청년하위문화에서 블랙은 다양한 아이템에 쓰여졌으나, 그 중에서도 블랙 레더 재킷에 사용된 블랙의 색채는 매우 충격적인 시각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블랙 레더 재킷의 블랙은 레더 소재 특유의 번들거리는 재질감과 함께 작용하여 특유의 불길하고도 위험한 매력을 발산했고, 불안, 공포, 허무, 반항이라는 상징성을 표현하였으며, 레더 소재와 결합하여 유희적인 성색(性色)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인류는 짐승의 가죽을 착용함으로써 야생의 강인함을 얻게 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동물적 힘의 차용이라는 특성은 레더에 특별한 상징성을 불어넣었다. 적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방어력 상실을 노릴 목적으로 레더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주의는 근대전에 있어서도 프러시아(Prussia)의 해골 마크나 전율적인 히틀러 친위대의 복장, 동구권 국가들의 군복과 군장 등에서 볼 수 있다<sup>13)</sup>. 이처럼 레더 소재 의상의 상징성, 위협, 과시 효과와 이에 더해진 실용성은 현대에 들어서도 오랜 전통을 이어 레더 의상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

## 2. Black Leather Jacker의 출현

블랙 레더 재킷이 등장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이다. 항공병을 비롯한 당시 조종사들의 표준 복장은 긴 스커트가 달린 레더 코트였으며, 방한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쪽에 털을 댄 형태였다. 처음에 조종사들이 플라이트 재킷에 레더 소재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물론 내구성이나 보온성 등의 이유에서였지만, 보기에 멋스러웠기 때문이었다<sup>14)</sup>. 초기의 코트 형태의 플라이트 재킷이 길이가 짧은 재킷 형태로 변형된 것은 조종사들이 비행 시에 외출용으로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소 실용적으

로 입을 수 있도록 허리길이를 간소화되었고 블랙 레더 재킷의 형태에 가까워졌다<sup>15)</sup>.

전선의 공포와 가장 가까이 마주치게 되지만 땅 위의 참혹한 학살 현장에서 벗어나 공중에서 싸울 수 있었던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스타일 형성에 가장 큰 몫을 한 플라이트 재킷은 실용성과 외형적 면모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종의 의식적 측면을 고취시켰다.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강한 플라이트 재킷은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의 극도의 위험한 상황과 연관되어 난폭하며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에 채택되면서 블랙 레더 재킷은 필연적으로 난폭함과 반항의 이미지를 담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 청년문화의 대두와 더불어 영화 「더 와일드 원(The Wild One)(1953)」에서 말론 브란도가 착용했던 블랙 레더 재킷은 청년하위문화에서의 반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드레스 코드에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전에도 모터사이클 갱들 사이에서 나타나던 블랙 레더 재킷이 이 영화로 인해 대규모로 확산되자 블랙 레더 재킷은 서구 사회에서 완전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의복 스타일은 청년하위문화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투영하는 일종의 상징성으로 볼 수 있다. 블랙 레더 재킷이 흥미를 끄는 까닭은 이러한 내재된 상징성 때문인데, 블랙 레더 재킷은 주로 범죄, 폭력, 성적인 집착, 마약 등과 관련된다. 또한 기성사회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청년문화에 있어서 의복은 계급적인 지위 상징을 비웃는다<sup>16)</sup>. 이것은 청년문화가 반역을 나타낸다<sup>17)</sup>는 지적과도 상응하는 부분이다. 즉, 청년하위문화에서 기성세대가 반대하는 부정적 상징으로서의 블랙 레더 재킷은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의 '권위에의 도전'을 위한 일종의 무기로서의 의복<sup>18)</sup>의 일면을 보여준다.

## Ⅲ. Black Leather Jacket의 스타일 유형

본 Ⅲ장에서는 청년하위문화 속에서 변천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더욱 각광받는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는 블랙 레더 재킷을 그와 관련된 청년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50년대부터 청년하위문화 속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 스타일은 바이커 스타일(biker style)을 시작으로 로커 스타일(rocker style), 그리저 스타일(greaser style), 헤드뱅어 스타일(headbanger style), 펑크 스타일(punk style)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각 스타일별로 조형적, 사회 문화적 특성을 몇 가지의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해 보았다.

### 1. 바이커 스타일(biker style)

바이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 중에서도 기본 퍼펙트에 가장 충실한 외양을 보여주며, 이후 나타나는 수많은 블랙 레더 재킷 스타일의 원형이 되었다. 특히 군복의 대체물로서 모터사이클 갱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별도로 게이 바이커 룩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 1) 군복의 대체물

1950년대 바이커들은 상당수가 전역 군인들이었다. 이들은 총과 전투기 대신 모터사이클을, 군복 대신 거부감이 느껴지는 의상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전쟁 영웅에서 사회 최하층의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한 자신들을 조롱하고 주류 사회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림 2><sup>19)</sup>은 「더 와일드 원」의 한 장면으로, 집단의 갱들이 모두 거의 같은 블랙 레더 재킷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속 지퍼는 앞여밈과 양쪽 포켓, 그리고 소매 끝에 사용되었다. 어깨에는 군복에서처럼 견장을 달아 넓은 어깨를 더욱 강조하였는데, 금속 단추와 함께 군복에서 차용된 별 모양의 금속 징을 박았다. 허리부분은 벨티드로 구성되거나 따로 금속 버클이 달린 벨트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더 와일드 원」의 블랙 레더 재킷

#### 2) 모터사이클 갱

바이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이 라이더 재킷(rider jacket)이라고 불리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커들에게는 재킷의 일차적인 목적이 모터사이

클을 타기 위한 기능성에 있었다. 그러므로 상징적 장식들은 간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바이커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주안점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킷의 등 부분에 갱들의 이름을 비롯하여 자신이 속한 갱 집단의 이름이나 상징을 프린팅하였다. <그림 3><sup>20)</sup>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갱들의 이름이나 소속, 상징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이니셜을 비롯하여 해골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림 3> 바이커 레더 재킷

#### 3) 게이 바이커

일반적인 바이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과 구별되는, 특별한 정체성과 스타일을 나타내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게이 바이커가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성 정체성 때문에 바이커 블랙 레더 재킷 중에서도 상당히 선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게이 바이커들은 레더 팬츠와 함께 입거나 재킷만을 착용하여 레더와 피부가 직접 맞는 다분히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였다. <그림 4><sup>21)</sup>은 1970년대의 게이 바이커 룩이다. 기본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금속 징을 칼라 주변과 소매의 구성선, 벨트 고리까지 라인스톤처럼 이어 박았고, 어깨에는 금속 링을 여러 개 이어 달았다.



<그림 4> 1970년대의 게이 바이커 룩

## 2. 로커 스타일(rocker style)

로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터프한 남성성을 강조하였으며 로큰롤과 스피드 감각을 표현하였고, 59클럽과 트라이엄프는 가장 뚜렷한 상징이었으며 이후 패션 로커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재킷에 나타나는 금속 징, 상징적인 그림들, 체인 등의 날카롭고 저돌적인 시각적 이미지는 헤드뱅어와 펑크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 1) 터프한 남성성

피터 요크(Peter York)는 1960년대 모즈(mods)와 로커의 충돌을 스타일 전쟁(Style Wars)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sup>22)</sup>. 스타일 전쟁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모즈와 터프한 이미지의 로커의 대립은 남성성의 정의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남성적인 로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당시 청년하위문화 스타일 중에서도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모즈와는 달리 거칠고 야성적인 남성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비로소 터프한 남성상이 남성의 일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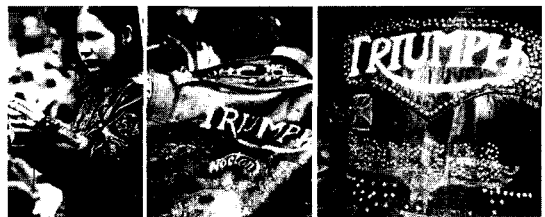
### 2) 로큰롤과 스피드감

로커들은 자신들의 흥분과 만족을 위해 음악과 모터사이클에 집중하였다. 특히 음악에 대한 로커들의 열광은 초기의 로커로 일컫는 톤 업 보이(Ton-up Boy)<sup>23)</sup>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톤 업 보이들은 순수하게 모터사이클과 레이스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로커는 로큰롤(rock 'n' roll)에 집중하였다<sup>24)</sup>. 또한, 로커들이 모터사이클을 예찬했던 이유는 운송수단 때문이라기보다는 파괴적인 스피드를 향한 충동 때문이었다<sup>25)</sup>. 그렇기에 로커는 모

터사이클의 충동적 감각에서 비롯된 장식성이 강한 복장을 형성하였다. <그림 5><sup>26)</sup>에서는 금속 징과 해골 마크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해골 마크는 로커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즐기는 모터사이클족들에게는 죽음의 회열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 3) 59클럽(Fifty Nine Club)과 트라이엄프(Trium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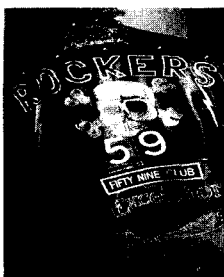
로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의 가장 큰 특징은 '59클럽'과 '트라이엄프'이다. 59클럽의 상징은 특별한 로커 클럽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요소로 자수의 페브릭 패치로 부착하거나 프린팅하였다. 트라이엄프는 말 그대로 승리를 뜻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빅토리(Victory)와는 달리 개선 내지는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트라이엄프라는 단어의 상징은 좀 더 저돌적이고 난폭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sup>27)</sup>에서는 이러한 상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매에 59클럽의 장식품을 부착하였으며, 트라이엄프 및 해골과 독수리 등을 상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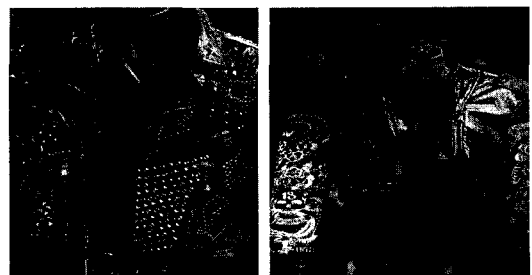
<그림 6> 59클럽과 트라이엄프

### 4) 패션 로커

1980년대에는 패션 로커(fashion rocker)라고 불리는, 색다른 형태도 나타난다. <그림 7><sup>28)</sup>은 다양한 금속 징으로 촘촘하게 장식된 로커 재킷을 보여



<그림 5> 로커 스타일 재킷



<그림 7> 금속 징 장식의 패션 로커 재킷

<그림 8> 볼레로 스타일의 패션 로커 재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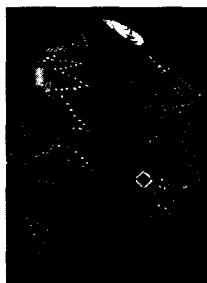
준다. 또한 <그림 8><sup>29)</sup>는 짧은 볼레로 스타일로 비교적 변형이 많이 된 로커 블랙 레더 재킷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 소매에 가득하게 문신과도 같은 프린팅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로커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전개되었다.

### 3. 그리저 스타일(greaser style)

그리저 스타일은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폭력과 사악함을 표현한다. 특히 그리저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의 대표적 특징은 불결함과 나치의 상징이다.

#### 1) 불결의 미학

그리저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다른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 비해 지저분하고 낡은 느낌의 것이 자주 보인다. 이러한 느낌을 내기 위해 찢거나 프린지 장식을 하기도 하였으며 아예 소매를 잘라 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리저들의 폭력적인 일면을 표현하는 시각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sup>30)</sup>은 1970년대의 영국 그리저이다. 원래 블랙의 색상이었으나 소재가 닳아서 대부분 변색되었고 소매가 없으며 금속 징과 견장으로 장식되었다. <그림 10><sup>31)</sup>는 1971년 영국의 그리저 갱 집단으로 선두가 착용한 블랙 레더 재킷은 금속 징 장식으로 매우 복잡하게 치장되어 있다. 그 중 오른쪽 남성이 착용한 재킷은 원래의 퍼펙트 스타일과 비슷할 정도로 단순하나 그리저 스타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프린지 장식이 달려있다.



<그림 9> 소매 없는 그리저 재킷



<그림 10> 그리저 갱

#### 2) 나치의 상징

그리저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 나타난 장식 중에서도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철십자와 스와스

티카(swastika)<sup>32)</sup>이다. 이 장식들은 파시즘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것이었다<sup>33)</sup>. 또한 그리저 문화 자체가 각종 범죄에 몰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식을 채택한 블랙 레더 재킷은 그리저들의 범죄적 정체성을 매우 잘 드러내는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sup>34)</sup>의 블랙 레더 재킷은 가슴과 칼라 부분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휘장과 배지들이 달려있다. 나치 신봉주의를 상징하는 하켄 크로이츠를 굵은 체인으로 목에 건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림 11> 나치를 상징한 그리저 재킷

### 4. 헤드뱅어 스타일(headbanger style)

헤드뱅어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로커와 히피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헤비메탈 문화의 광기를 드러내는 페티시와 여성혐오, 죽음과 사타니즘의 요소를 표현하였다.

#### 1) 로커와 히피 요소의 혼합

1960년대 후반 락 음악은 슬럼가와 노동 계급에서 탄생한 오리지널 로큰롤의 직설적인 면과는 거리가 먼, 장식적인 정교함을 갖는 중류 계층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비메탈은 로큰롤의 뿌리를 좀 더 엄두에 두는 방향으로 락 음악들 사이의 조화를 피하였고, 조화의 한 방향으로 스타일적으로도 '히피와 로커 문화의 예상외의 결합'을 빠르게 달성했다. 이러한 스타일의 융합은 닳고 낡은 데님, 지저분한 긴 머리, 블랙 레더 재킷, 현란함 등의 특징적 요소들을 뒤섞은 듯한 스타일을 만들어내었다. 그 밖에도 반짝거리는 금속장식들과 현란한 페인팅과 같은 글램(Glam)과 사이키델릭의 요소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장식적 성향은 헤드뱅어 스타일 자체가 수공예적인 장식이 두드러지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은 데다, 음악적으로도 화려한

무대 매너와 헤드뱅잉(head banging) 등 시각적 과시 효과가 컸던 테서 윈인을 찾을 수 있다.

## 2) 페티시와 여성혐오

헤비메탈은 종종 대중음악이 갖는 최악의 무절제함을 포함한다고 비난받았다.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자기도취와 성차별주의가 있다<sup>35)</sup>. 이러한 남성 중심의 자아도취는 남성성 과시와 더불어 여성혐오로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기타 다른 블랙 레더 재킷들이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남성성을 과시했다면, 헤드뱅어 스타일에는 이러한 성적 의미에서의 남성 우월, 자아도취 구조의 남성적 과시가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성의 과시는 페티시한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함으로써 나타났다. <그림 12><sup>36)</sup>이 그 대표적인 예로, 머리카락을 산발하고 하이힐의 레더 부츠를 신은 나체의 여자가 주변의 표범무늬 프린트와 함께 피기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분위기로 그려져 있다.



<그림 12> 여성 혐오를 표현한 헤드뱅어 재킷

## 3) 죽음과 사타니즘

헤드뱅어는 주로, 여성 혐오와 악마 숭배적인 암시로 비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타니즘(Satanism)의 경향은 헤비메탈에서는 중요한 특징이다. 메탈 음악에서의 이러한 일종의 광기는 슬래시 메탈(slash metal)과 데스 메탈(death metal)로 진화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sup>37)</sup>. 이러한 예는 <그림 13><sup>38)</sup>의 블랙 레더 재킷에 여러 상징과 부정적 글귀들을 그려 넣은 모습에서 볼 수 있다. LA GUNS<sup>39)</sup>라고 쓰여진 글귀 아래로 성교(SEX), 술(BOOZE), 문신(TATTOO) 등의 글귀가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과 함께 장미와 단검, 해골 등의 피와 죽음에 관련된 상징이 나타나

며, 붉은 색의 흘러내린 글씨는 피를 연상하게 한다. 헤드뱅어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예찬은 곧 헤비메탈 음악과 마찬가지로 악마 숭배의 개념으로 이어졌다.



<그림 13> 죽음을 상징한 헤드뱅어 재킷

## 5. 펑크 스타일(punk style)

펑크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은 특히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가 즐겨 입었던 펑크 로커(punk rocker) 스타일의 재킷이 가장 널리 알려졌다. 펑크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는 나치즘, 마르크시즘, 반역죄, 신에 대한 모독, 성도착증과 같이 기성 세대들을 불쾌하게 할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1) 섹스 피스톨즈

영국에서 등장한 펑크 락 그룹들은 기존 사회의 이상인 부르주아적 스타일에 대한 반항과 더불어, 영국의 경제 불황으로 발생한 사회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의상과 관련된 사회 저항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펑크는, 1976년 섹스 피스톨즈와 함께 등장하였다. 섹스 피스톨즈는 펑크 스타일 중에서도 펑크 로커 스타일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섹스 피스톨즈가 착용하였던 블랙 레더 재킷은 그룹의 유명세와 더불어 파급효과를 갖게 되었다<sup>40)</sup>. <그림 14><sup>41)</sup>은 섹스 피스톨즈의 베이스 주자였던 '시드 비셔스(Sid Vicious)'가 착용한 펑크 로커 스타일의 재킷이다. 그런지 스타일에 금속 지퍼를 사용하였고 견장을 달아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5><sup>42)</sup>에서는 독수리 휘장 모양의 금속 배지가 나타나며, 그 밖에도 해골과 'I'm A Mess'라고 쓰여진 위협적인 느낌의 배지를 볼 수 있다.



〈그림 14〉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 비셔스 I



〈그림 15〉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 비셔스 II

## 2) 반사회적 니힐리즘

펑크 스타일의 체인과 면도날, 인조 피트자국과 흉터 등의 차림은 불쾌감과 위협을 의도한 것이며 어떤 반발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었다<sup>43)</sup>. 펑크들은 영국의 화려한 가면 아래 숨겨진 복잡하게 얽힌 신경쇠약의 실태를 극적으로 드러내 보였다<sup>44)</sup>. 이러한 반사회적 허무주의는 펑크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도 확연히 드러난다. 펑크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에는 자해, 손상, 섹슈얼리티, 귀여움이나 자연주의에 대한 폭력적 거부가 넘쳐난다. 블랙 레더 재킷에는 정치적인 나쁜 기호(하켄크로이츠), 성적으로 나쁜 기호(사용된 텀폰이나 콘돔), 또는 오물과 체인, 싸구려(검은 휴지통, 안전핀), 무시무시함(면도날), 섬뜩함(교수형 집행인의 울가미로 사용된 얇은 검은색 타이)를 풍기는 장식적인 장치들이 부착되었다<sup>45)</sup>. 특히, 〈그림 16〉<sup>46)</sup>의 재킷에서는 하드코어 펑크(hardcore punk)를 중심으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A' 문자를 볼 수 있다. 이것은 'Anarchy'의 A로서 그룹 크래스(Crass)<sup>47)</sup>에 의해 유행된 펑크의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은 펑크 스타일의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림 16〉 A 문자를 장식한 펑크 재킷

## IV. Black Leather Jacket의 미적 특성

블랙 레더 재킷의 미적 특성은 앞서 언급한 원천적인 상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래의 블랙 레더 재킷의 이미지가 전위적이고 반항적인 청년하위문화 정서와의 합일점을 찾게 되면서 많은 청년하위문화 스타일들이 블랙 레더 재킷을 착용하였고, 그중 몇몇은 대표적인 스타일로 채택되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이용하였다.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의 미적 특성은 크게 과시적 테러리즘, 역사적 트로피즘, 남성적 에로티시즘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과시적 테러리즘(displaying terrorism)

블랙 레더 재킷은 플라이트 재킷으로 출현할 때부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고, 남성들만이 갖는 전쟁의 경험에 대한 과시는 곧 위협적이며 지극히 남성다운 면을 부각시키는 스타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청년하위문화 속에서 여러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도 지속되었다.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이 과시적인 남성성에 대한 표현으로 힘과 용기, 그리고 전통적인 '남성다움'을 나타내게 된 것은 다음의 특징적 요소로부터 기인한다. 블랙 레더 재킷에서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쓰여지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색상이다. 제 1차 세계 대전 시에 조종사들의 유니폼에서부터 제 2차 세계 대전 시 나치들의 군복에 이르기까지 위협적인 힘의 상징으로 이어져 온 레더 재킷이 전반적으로 블랙의 색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블랙의 강한 시각적 자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성 과시를 위한 두 번째 요소는 강조된 어깨와 날씬한 허리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표현된다. 역삼각형의 남성 체형은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허리를 날씬하게 표현하고, 견장과 금속 장식을 부가하여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헤드밴더 블랙 레더 재킷에서는 금속이나 프린지 장식을 통해 어깨와 가슴이 확대되어 보이게 함으로써 남성다운 육체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레더 소재에서 표현되는 동물적 힘과 난폭한 감성은 남성적 느낌을 강화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남성성으로 장려되는 힘과 강건함의 과시는 블랙 레더 재킷에서 난폭하고 위협



<표 1>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의 출현 배경과 특성

스타일	키워드	도식화		
바이커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복의 대체물</li> <li>· 모터사이클 갱</li> <li>· 게이 바이커</li> </ul>			
로커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프한 남성성</li> <li>· 로큰롤과 스피드감</li> <li>· 59클럽과 트라이엄프</li> <li>· 패션 로커</li> </ul>			
그리저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결의 미학</li> <li>· 나치의 상징</li> </ul>			
헤드 뱀어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커와 히피 요소의 혼합</li> <li>· 페티시와 여성혐오</li> <li>· 죽음과 사타니즘</li> </ul>			
펑크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섹스 피스톨즈</li> <li>· 반사회적 니힐리즘</li> </ul>			

적인 요소로 표현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과시적 테러리즘으로 명명하였다.

## 2. 역설적 트로피즘(paradoxical trophyism)

트로피즘이란 본래 착용자의 힘, 용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의 형태로서, 일종의 전리품을 상징하는 구실을 한다<sup>48)</sup>. 그러나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나는 블랙 레더 재킷에서는 이러한 본래적 트로피즘과는 다른 색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트로피즘의 훼손, 조롱,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된 '나쁜' 취향의 트로피즘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역설적 상징이다. 이것은 트로피즘에 대한 공공연한 비웃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회의 하부 계층, 노동 계층으로서의 자아 정체감과 불안감이 주류 사회에 충격을 가하는 부정적 장식성으로 인해 비로소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역설적 트로피즘의 구체적인 예로 대표적인 것이 해골이나 위협적 글귀와 같은 부정적 상징을 새긴 배지와 하켄크로이츠, 주석으로 만든 독수리 모양 배지 등의 나치 상징물 등이다.

이 밖에도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주로 반항의 의미로 블랙이 이용되었는데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블랙의 상징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반항적인 로큰롤 스타들의 블랙 레더 무대의상과 로커들의 불량한 차림, 펑크들이 자주 사용한 블랙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절망의 의미 등을 들 수 있다<sup>49)</sup>. 또한 블랙은 일반적 느낌으로 어두운 공간, 중립, 밤, 공허를, 직접적 연상으로 애도, 불길함, 죽음, 억압을 연상시킨다<sup>50)</sup>. 이렇게 블랙이라는 색상에 대한 연상이 부정적인 만큼 블랙에 대한 기호도 부정적이며, 청년하위문화 집단에서의 블랙에 대한 기호가 반항과 자포자기한 희망 없음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블랙 레더 재킷의 낡은 듯한 소재와 너털너털한 표현, 찢거나 구멍을 뚫는 것도 공허한 느낌을 부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그래피티와 파괴적 메시지가 담긴 프린팅은 기성 사회에 대한 저항을 표방한다.

이와 같이, 블랙 레더 재킷이 갖는 허무주의와 저항성은 주로 반의적으로 표현한 트로피즘적 요소로 표현되므로 이러한 미적 특성을 역설적 트로피즘으로 명명하였다.

## 3. 남성적 에로티시즘(masculine eroticism)

블랙 레더 재킷에서 성적인 부분의 강조는 사회

적으로 금기시되던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킨다는 데 그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블랙 레더 재킷에서 남성의 성적 과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색상을 이용한 것과 재킷의 짧은 길이를 이용한 둔부의 강조, 좀 더 직접적으로 성기 부분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등이 있다.



〈그림 17〉 짧은 재킷으로 둔부 강조



〈그림 18〉 남성 성기를 강조하는 블랙 레더 재킷

블랙의 색상에 내재된 병적인 상징과 페티시적 감각은 블랙 레더 재킷의 이러한 쾌락적 에로티시즘 형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둔부와 성기는 남성적 에로티시즘의 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남성의 권위 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킷이 성적 부분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길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타이트 진과 짧은 블루종 재킷으로 이루어진 콤비네이션은 다시 표면화되었고, 이것은 '탐 오브 핀란드(Tom of Finland)<sup>51)</sup>'의 드로잉에서 명백한 동성애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은 게이들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성애 남성들에게도 어필하였다<sup>52)</sup>. 탐 오브 핀

란드의 작품인 <그림 17><sup>53)</sup>에서는 블랙 레더 재킷 아래로 나타나는 남성적 곡선을 과장된 터치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짧은 블랙 레더 재킷으로 인해 드러나는 남성 성기의 강조는 청년하위문화에서 블랙 레더 재킷에 필연적인 요소로 따라 다니는 타이트한 진이나 레더 팬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기성사회의 남성 복장이 강조하는 명예와 체면, 권위 같은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청년하위문화에서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에서는 그 자체의 조형성과 코디네이션으로 이러한 자극적 에로티시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타이트한 팬츠, 짧은 블랙 레더 재킷, 남성의 성기 바로 윗부분에 번쩍거리는 재킷의 금속 버클은 이러한 퇴폐성 짙은 남성적 매력을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는 요소이다<그림 18><sup>54)</sup>.

이처럼, 남성의 성적 매력을 퇴폐적으로 표현하는 블랙 레더 재킷의 미적 특성을 남성적 에로티시즘으로 명명하였다.

폭하며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레더 재킷의 기능성과 함께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에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0년대 이후부터 청년하위문화에서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은 대표적으로 5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바이커 블랙 레더 재킷은 군복을 대신하며, 총과 전투기를 대신하는 모터사이클과 함께 몰락한 전쟁영웅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모터사이클 갱의 집단성을 특수한 상징이나 이니셜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게이 바이커들은 선정적 스타일의 블랙 레더 재킷을 보여주었다. 둘째, 로커 블랙 레더 재킷은 터프한 남성성에 대한 정의의 전환을 가져왔고, 로큰롤과 모터사이클에 몰두하며 과격한 치장으로 스피드와 죽음에 대한 희열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로커 클럽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59클럽 상징과 난폭한 승리감을 상징하는 트라이엄프가 나타나며, 1980년대에는 다양한 변형을 통해 패션 로커로 진화하기도 하였다. 셋째, 그

<표 2>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의 미적 특성

특징	표현요소	표현방법	상징	유형
과시적 테러리즘	색상	- 전형적인 남성색 - 강한 시각적 자극	힘과 용기, 난폭함 등의 과시적인 남성성 표현	바이커 로커 그리저 펄크
	조형미	- 역삼각형 형태 (강조된 어깨와 가슴, 날렵한 허리)		
	장식미	- 조형미의 부가적 요소 (배지, 금속장식, 프린지 장식 등)		
역설적 트로피즘	소재효과	- 소재의 동물적이고 난폭한 느낌	허무주의와 무질서, 무정부주의로의 도피, 반항성	로커 그리저 펄크
	색상	- 불길함, 불안정함, 공허함을 드러내는 색채 상징		
	역설적 트로피즘	- 본래적 트로피즘의 훼손과 조롱 - 나쁜 취향의 트로피즘 사용		
	소재효과	- 낡은 듯한 소재 감각, 찢기, 구멍내기, 너털너털한 표현		
남성적 에로티시즘	그래피티	-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표현 - 파괴적 메시지	일탈적인 감성적 쾌락 추구, 금지된 욕구에 대한 집착, 남성적 섹슈얼리티의 부가	바이커 헤드뱅어
	색상	- 블랙의 페티시적 상징		
	둔부의 노출	- 남성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부분 - 남성적 권위 형성에 위배		
성기의 강조	성기의 강조	- 남성 성기의 자극적 강조 - 퇴폐적인 남성적 매력의 발현		

## V. 결론

청년하위문화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은 제 1차 세계대전 때의 항공병들의 가죽 코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이 점차 간소화되면서 재킷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특히 이 플라이트 재킷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위험한 상황과 연관되어 가장 남자답고 난

리저 블랙 레더 재킷은 지저분하고 낡은 소재와 과도한 금속 장식으로 반항과 폭력성을 표현하는 불결의 미가 나타나며, 나치의 독수리 문양과 하켄크로이츠로 그리저 문화에 접철된 범죄적 성향을 표현하였다. 넷째, 헤드뱅어 블랙 레더 재킷은 로커와 히피 요소의 혼합과 헤비메탈 음악의 시각적 요소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남성 중심적 자아도취로 인해 여성 혐오적 프런

팅이 나타나기도 하며, 메탈 음악의 진화와 함께 죽음과 악마 숭배적 이미지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펑크 블랙 레더 재킷은 특히 섹스 피스톨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허무주의와 분노의 표현으로 그런지 스타일과 A 문자, 하켄크로이츠, 온갖 금속장식과 조악한 페인팅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블랙 레더 재킷에 대한 미적 특성을 추출한 결과, 크게 과시적 테러리즘, 역설적 트로피즘, 남성적 에로티시즘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과시적 테러리즘은 블랙의 색상과 역삼각의 조형미, 부가적 장식과 가죽 소재의 동물적이고 난폭한 느낌으로 힘과 용기, 위협적인 면을 과시하는 남성성으로 나타났다. 역설적 트로피즘은 불길하고 불안정한 블랙의 색채 상징과 나쁜 취향의 트로피즘, 낡고 찢어진 소재 효과와 파괴적 메시지의 그래피티를 통해 허무주의와 무질서, 무정부주의로의 도피, 반항성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적 에로티시즘은 블랙 레더 재킷의 짧은 길이로 인한 둔부의 노출과 남근의 자극적 강조, 그리고 블랙의 페티시적 상징을 통해 일탈적이고 감성적인 쾌락 추구와 금지된 욕구에 대한 집착, 남성적 섹슈얼리티의 부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블랙 레더 재킷의 미학은 젊음과 스피드, 섹스, 죽음 등의 묘한 동질성에서 오는 특징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이른바 '정상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감수성과 자극적 향락, 이질적 사회집단으로부터 유래한 염세적이고 병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블랙 레더 재킷이라는 한 아이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적 특성의 규명을 통해 블랙 레더 재킷이 갖는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현대 패션에서 블랙 레더 재킷과 연관된 패션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하위문화의 블랙 레더 재킷을 바탕으로 한 패션 디자인의 발상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후속 연구를 통해 현재의 패션으로 이어지는 블랙 레더 재킷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블랙 레더 재킷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본래 비행기 탑승 시 착용했던 재킷, 가죽 등으로 만들어 안쪽에 보아(boa)를 댄 것이 깃이나 소매부리, 단에 보이게 하였다. 라사라교육개발원 (1995). *복식대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p. 1438.
- 2) 프랑스로부터 검정색 점퍼라는 뜻, Takamura, Z. (1997)는 프랑스에서 로커들(rockers)이 블루중 노아르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 3) 양미경 (2003).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엄소희 (1988).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장미선, 조규화 (1996). 로큰롤 패션(Rock'n'roll Fashion)에 관한 연구. *한국류학회지*, 20(2), pp. 323-335.
- 6) 정미진, 정홍숙, 김선화 (2002). 락 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복식*, 52(2), pp. 173-186.
- 7) Polhemus, T. (1994). *Street 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London: Thames & Hudson.
- 8) Haye, A. & Dingwall, C.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and skaters: Subculture styles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New York: The Overlook Press.
- 9) Takamura, Z. (1997).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 Sha.
- 10) 라사라교육개발원 (1995). *op. cit.*, p. 1032.
- 11) Farren, M. (1985). *The black leather jacket*. New York: Abbeville Press, p. 8.
- 12) 송명희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8.
- 13) Langner, L. 저, 박동준 역 (1992). *복장의 심리*. 유신문화사, p. 69.
- 14) Farren, M. (1985). *The black leather jacket*. New York: Abbeville Press, p. 22.
- 15) *Ibid.*, p. 22.
- 16) Sproles, B. G. & Burns, L. D. (1994). *Changing appearances: Understanding dress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Fairchild Pub, p. 123.
- 17) ジョン・サバージ 著 (1999). *イギリス「族」物語: The History of English Youth Culture*. 毎日新聞社, p. 7.
- 18) Latzke, A. & Hostetter, H. (1968). *The wide world of clothing: Economics, social significance, selec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p. 23.
- 19) Farren, M. (1985). *op. cit.*, p. 7.
- 20) Takamura, Z. (1997).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 Sha, p. 69.
- 21) Sims, J. (1999). *Rock fashion*. Omnibus Press, p. 213.
- 22) Polhemus, T. (1994). *op. cit.*, p. 54.
- 23)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모터사이클광들이 런던의 에이스 카페(Ace Café) 같은 장소에 모였다. 그때까지 그들은 톤업 보이(Ton-up Boy), 커피 바 카우보이(Coffee-bar Cowboys), 레더 보이(Leather Boys) 등으로 알려졌다. Takamura, Z. (1997). *op. cit.*, p. 86.
- 24) Polhemus, T. (1994). *op. cit.*, p. 57.

- 25) ジョン・サベージ 著 (1999). *op. cit.*, p. 45.
- 26) Polhemus, T. (1994). *Street 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p. 57.
- 27) Farren, M. (1985). *op. cit.*, p. 57, p. 9, p. 55.
- 28) Haye, A. & Dingwall, C. (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and skaters: Subculture styles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New York: The Overlook Press, p. 48.
- 29) Haye, A. & Dingwall, C. (1996). *op. cit.*, p. 48.
- 30) Haye, A. & Dingwall, C. (1996). *op. cit.*, p. 45.
- 31) Polhemus, T. (1994). *op. cit.*, p. 67.
- 32) 갈고리 십자 모양의 산스크리트어, 나치 독일의 상징으로 쓰이는 상징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서 주로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라 불린다.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인터넷 판.
- 33) Takamura, Z. (1997). *op. cit.*, p. 68.
- 34) Polhemus, T. (1994). *op. cit.*, p. 68.
- 35) 로이 셔커 저, 이정엽, 장호연 역 (1999). 대중음악사전. 한나래, pp. 355~356; 양미경 (2003). *op. cit.*, p. 83에서 재인용.
- 36) Polhemus, T. (1994). *op. cit.*, p. 83.
- 37) 1980년대 중반부터 메탈은 슬래시 메탈로 진화하였고, 이후 그 자체의 주술적 환상과 더불어 더 무겁고 더 날카로운 데스 메탈로 진화했다. 데스 메탈은 슬래시 메탈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여기에 속하는 그룹들은 죽음에 대한 찬미, 고문, 폭력, 수족의 절단 그리고 부패 등에 사로잡혀 있다. 무질서하고, 빠른 스피드의 음표 배열, '골각대는 소리(Gurgling-Sewer)'를 첨가하는 스타일의 보컬로 완전하게 음악적인 효과를 낸다. Takamura, Z. (1997). *op. cit.*, p. 158. / 하세민 (1996). 헤비메탈대사전, 권.
- 38) Polhemus, T. (1994). *op. cit.*, p. 83.
- 39) 특히 L.A.는 메탈의 온상이 되었다. 많은 헤비메탈 밴드들이 L.A.에서 태어났고 그 중 머틀리 크루(Motley Crue), 건스 앤 로지스(Guns N'Roses) 등의 밴드에게 L.A. Metal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L.A. Guns는 이 L.A. Metal 그룹의 2기에 속했던 그룹의 명칭이다. <http://randy.x-y.net/rock/rock.html>
- 40) 1974년 말콤 맥라렌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고무와 가죽 제품을 파는 S&M(가학, 피학성의 변태 성욕) 애호 매장인 '섹스(Sex)'를 열었다. 그리고 섹스 퍼스널즈의 멤버는 모두 이 매장의 옷을 입었으므로 가죽 소재의 의상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 41) Sims, J. (1999). *op. cit.*, p. 59.
- 42) Sims, J. (1999). *op. cit.*, p. 57.
- 43) Lurie, A. (2000). *The language of clothes*. New York: Henry Holt & Company, p. 161.
- 44) ジョン・サベージ 著 (1999). *op. cit.*, p. 131, p. 144.
- 45) Buxbaum, G.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p. 120.
- 46) Sims, J. (1999). *op. cit.*, p. 55.
- 47) 1978년 결성된 크래스는 독특한 스타일로 아나코 펑크(anarcho punk)라고 하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보하여 많은 펑크밴드들에게 음악적, 사상적 영향을 끼친 선구적인 밴드이다. 그들에게 음악보다 중요한 것이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영국 내에서 무정부 상태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정의한 아나키(Anarchy)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이었다. <http://www.punk77.com>
- 48) Horn, M., Gurel, L. 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1981).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p. 40.
- 49) 광혜선, 금기숙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pp. 231-252; 김순자 (2002). 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6), pp. 139-164.
- 50) Birren, F. 저, 김화중 역 (1987). 색채심리. 동국문화사, p. 182.
- 51) 전후 게이 하위문화에서 '탐 오브 핀란드'는 피지크 잡지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드로잉들에는 선원, 경찰관, 군인의 신고전주의적인 제복들과 가죽 복장에 대한 페티시, 관음증, 새도매저키즘적인 환상과 욕망, 그리고 보디빌딩과 스테로이드라는 테크놀러지가 만든 근육질 육체와 남성성이 과장되어 나타났다. 폭토에서 고티에까지: In the Navy, 2003. 06. 07., zelig. 자료출처: <http://www.zeligpop.com>
- 52) McDowell, C. (1997). *The ma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en*. New York: Thames & Hudson, p. 10.
- 40) Maguire, J. & Conway, J. (2000). *American flight jackets*. Schiffer Military History.
- 41) Callan, G. (1998). *Dictionary of fahsion & fahsion designers*. London: Thames & Hudson.
- 42) Jones, M., Colon-Lugo, E. (1987). *Getting it on*. New York: Abbeville.
- 43) Polhemus, T. (1996). *Style surfing: What to wear in the 3rd millennium*. London: Thames & Hudson.
- 44) Sims, J. (1999). *Rock fashion*. Omnibus Press.
- 45) Steele, V. (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46) Soen eye (1991). *ファッション文化研究誌 装苑アイ創刊号~第3号合本*.
- 53) McDowell, C. (1985). *The ma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en*. New York: Thames & Hudson, p. 10.
- 54) Steele, V. (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55, p. 177.